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제53회 세미나 열려

8 쉬핑뉴스넷 | © 승인 2024.11.19 17:21

우리나라 유일의 선박건조를 위한 사회과학연구자들의 연구모임인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회장 김인현 명예교수)는 제53회 세미나를 18일 18:30~21:30까지 고려대 CJ 법학관 최고위 과정 및 온라인(Zoom)을 통해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학회의 창간호 발간, 조직의 확대개편 및 사단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제1세션에서 박영준 부회장은 사단법인화 경과 보고를 했다. 12월 중순까지 법원에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제2세션에서 최근의 선박건조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우리 조선의 미국조선업 진출과 존스(Jones) 법에 대한 보충설명을 김인현 회장이 했다. 존스법은 일종의 카보타지 법으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미국의 내항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설계와 블록제조는 외국에서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해역을 운항하는 미국군함에 대한 수리유지보수는 외국 회사가 해도 되는데, 이를 우리 한화조선 등이 인수하여 하고 있다. 미국내 군함의 수리유지보수에 우리 조선소의 뛰어난 기술을 미국이 필요하는 것으로 안다.

한세희 해양진흥공사 과장은 카타르LNG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있었던 1-3차 명명식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동 LNG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구조를 설명했다. (i) 총 15척의 선박에 대한 장기용선계약을 따낸 K3컨소시움(에이치라인해운, 에스케이해운, 팬오션)은 선박1척 당 SPC 1개를 설립하고 동 SPC를 선주로 하여 우리 조선소와 건조계약 및 선후순위 대주와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ii) K3 해운선사들은 각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iii) K3 해운선사들이 설립한 합작회사와 다시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iv) 이 합작회사가 또다시 카타르 LNG 측과 채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선박근저당권과 함께 카타르 LNG로부터 수령하는 장기의 용선료가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요 담보가 된다.

제3세션 제1주제인 “국내 중형조선소를 위한 RG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동해 본부장(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발표했다. 조선소는 발주자인 선주로부터 건조대금의 일부인 선수금을 받는데, 이를 반납가능하도록 보증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선주에게 제공해야한다. 이것이 RG이다. 중소형 조선소는 신용이 낮기

때문에 은행이 RG발급을 꺼린다. 무역보험공사는 특별 RG보증제도를 통해, 일반 은행이 제공하는 RG대금의 95%까지 은행에게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 본부장은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중소기업조합을 만들어 조합의 사업으로 RG발급을 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세호 실장 (산업은행)은 조선업계 자발적인 자원 마련과 정부 등의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조합의 설립은 중소기업 조합의 부족한 RG한도를 마련하는데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로서 보았다.

그리고 배철남 전무(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는 중소기업조합은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을 은행대출의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이므로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했다.

제2주제인 “컨테이너 박스 금융과 담보”에 대해 한세희 과장(해양진흥공사)이 발표했다. 정기선사는 자신이 보유한 선박의 1.5배에서 2배까지 컨테이너 박스를 보유해야 한다. 소유하기도 하지만, 리스를 하기도 한다. 선박의 BBCHP와 같이 금융리스를 통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정기선사들이 박스를 보유하기도 한다. 컨테이너 박스는 동산 특성상 기본적으로 항상 위치가 바뀌므로 저당권 실행에 한계가 있어 금융 담보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등이 요구되며, 최근 IoT를 장착한 스마트 컨테이너의 제조가 늘고 있는데, 위치 파악이 용이하여 담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신조로지텍의 권순욱 사장과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자신들이 개발 중인 제습 컨테이너에 대해 소개했다. 컨테이너가 습기가 차서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컨테이너 박스를 개발하고 실증단계에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회장, 정우영 수석부회장, 안광현 수석부회장, 원동욱 편집위원장, 장세호 상무이사, 이현균 이사가 현장에 참석했고, 온라인에 신언수 고문, 이동해 부회장, 박영준 부회장, 신용경 이사, 배정철 이사, 강동화 이사, 배철남 이사 등 30명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리=김인현 명예교수]

